〈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개봉

한기총 등 상영반대…거센 반발 속 흥행은?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등 종교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다빈치 코드’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다빈치 코드’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450개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됐다. ‘다빈치 코드’는 17일 개막된 프랑스의 제59회 칸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 최초 프리미어(공식상영)가 진행된 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됐다.

전 세계적에서 수천만부가 팔린 댄 브라운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로 만든 ‘다빈치 코드’는 영화로 기획될 당시부터 일부 종교계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 왔다. ‘다빈치 코드’에 대한 이들의 ‘안티’는 소설과 영화 모두 예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라는 이유 때문.

실제로 ‘다빈치 코드’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프랑스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가 됐다는 가설을 담고 있다.

한기총은 영화 개봉이 시작된 18일부터 주요 상영관을 중심으로 상영반대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 같은 시위는 종영 때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영화 ‘다빈치 코드’는

‘예수는 결혼했고 성배란 그의 아내’ 동명 소설 영화화…톰 행크스 주연

영화 ‘다빈치 코드’는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소설 ‘다빈치 코드’는 2003년 발간 후 전 세계적으로 4천만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270만부가 팔려나갔다.

영화는 ‘예수는 결혼했고 ‘성배’란 그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를 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시온 수도회는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들의 후손을 보호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기를 맞는 가톨릭 교회가 이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 조직 오푸스데이와 손잡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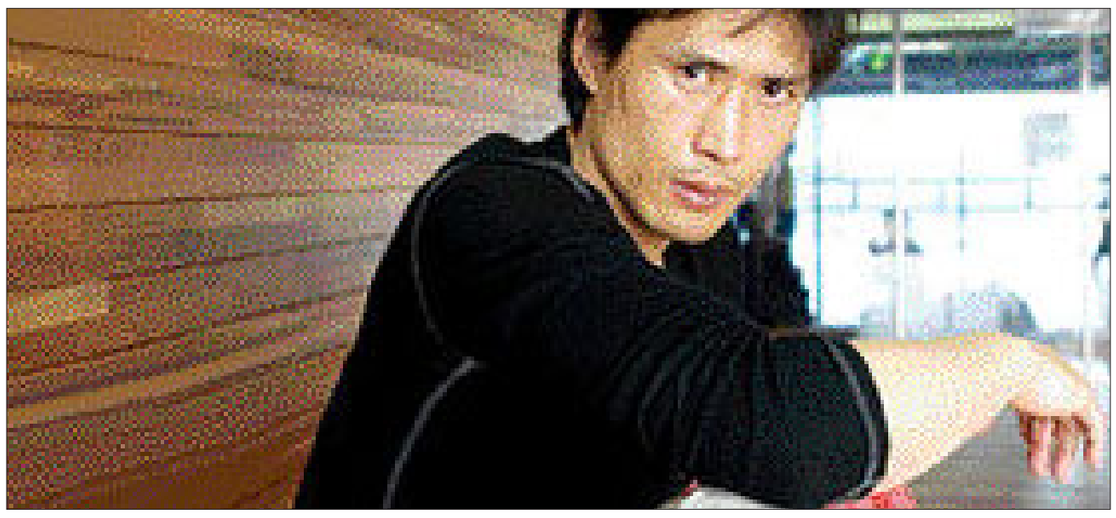
제작진은 ‘뷰티풀 마인드’의 론 하워드 감독과 톰 행크스, 오드리 토투, 폴 베타니, 장 르노 쟁쟁한 배우를 캐스팅했다. 또 1억3천만 달러가 넘는 순제작비를 투입,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링컨 성당, 템플 교회, 빌레트 성 등 실제 건축물을 생생하게 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중세시대 예술가의 숱한 작품을 복원했다.

파리에 체류중이던 하버드대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은 깊은 밤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자크 소니에르가 박물관 내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시체 주변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로 가득하고 랭던은 자크의 손녀이자 기호학자인 소피 느뷔와 함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오동진의 씨네카페

‘짝패’서 본격 연기자로 변신한 무술감독 정 두 홍



“감정연기, 쑥스러워서…”

정두홍을 아십니까. 무술감독으로 국내 영화계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온 정두홍 감독이 최근 본격 연기에 나섰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짝패’에서 스스로 주연을 맡은 류승완과 호흡을 맞춰 주연급 연기를 선보이는 것. 무술연기에서 감정연기까지, 정두홍을 두고 사람들은 요즘 물만난 고기라는 표현을 쓴다.

-무술감독은 카메라 뒤에 선다. 이번엔 제대로 앞에 섰다.

▲앞에는 무슨…내 연기는 내가 봐도 으…그냥 류승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니 내 연기의 공과(功過)는 전부 류승완 감독 몫이다.

-연기가 처음은 아니다.

▲맞다. 알게 모르게 많이 했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내추럴 시티’ ‘아라한 장풍 대작전’ 등등. 무술연기를 하다 보니 주로 악역을 했다. 이번은 아니다. 이번엔 좋은 쪽이다.

-주연을 맡은 기분이 어떤가?

“주연이었나? 그냥… 열심히 찍었을 뿐”

▲주연이었나?(웃음) 난 그런 거 모른다. 정말 그냥…열심히 찍었을 뿐이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나에게 그런 욕심은 없다. 류승완 감독과 맘이 맞았고 둘이서 이런 영화를 정말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영화라면?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하고 지나치게 와이어 액션을 쓰지 않는, 몸으로 하는 액션영화를 말한다.

-영화속에서 술먹고 하는 감정연기가 있다. 웬만한 연기자 뺨치더라.

▲아 그거…근데 그거 열 몇차례 찍은 거다. 얼마나 힘들던지 말도 마라.

-앞으로 연기를 계속할 건가?

▲언제는 연기를 하지 않아 왔나. 무술연기 역시 엄연한 연기 장르의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화연기는 계속된다. 그리고.지금 작업중이긴 하지만 직접 감독을 하는 작품을 한편 준비중이다. ‘바운스’란 작품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블랙 레인’이란 작품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느낌이 올 것이다.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짝패’는 어떤 영화?

십여년만에 재회한 다섯 고향친구의 엇갈린 운명

2005년 충청도 온성이란 소도시가 배경이다. 서울에서 형사생활을 하던 태수(정두홍)는 어린 시절 죽마고우 왕재(안길강)의 부음을 듣고 십여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오랜 고향친구들인 필호(이범수)와 석환(정석용), 동환(류승완) 형제와 재회한다. 왕재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품은 태수는 서울로의 복귀를 잠시 보류하고 며칠 더 고향에 남기로 한다.

친구 석환의 동생 동환과 왕재의 죽음을 조사하던 태수는 뜻밖의 사실, 그러니까 왕재를 필호가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한다.

‘짝패’는 친구의 복수를 하려는 두 남자, 두 짝패의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찌든 삶에 몸부림치는 이 세상 아랫 것들의 심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

선과 악의 사는 ‘꼴’들은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지방의 한 소도시를 무대로 조그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영화 속 인물들은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 비루하긴 마찬가지다. 서로의 등과 배에 칼을 꽂고 몸서리친다 한들, 인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해외 영화계 이슈

美 ‘사인 컬렉터스’ 선정 친절·불친절 스타 10인

팬들이 아무리 귀찮게해도 웃는 낯으로 가장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는 스타는 누구일까.

미국의 사인(sign) 수집가 전문잡지인 ‘사인 컬렉터스’ 최근호가 발표한 ‘가장 친절한 스타 10인, 가장 불친절한 10인’ 명단에 따르면 ‘가위손’ ‘카리브의 해적’의 조니 뎁이 팬들에게 가장 친절한 스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니 뎁은 지난해에도 같은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조니 뎁은 언제 어디서나 팬들의 사인 요구에 잘 응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항에서 짐을 들고 있을 때 조차 사인을 마다 한 적이 없다”고 이 잡지는 그를 1위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2위로 친절한 스타는 조지 클루니. 그는 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사진을 내밀면 자신의 외모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등 사인을 하는 짧은 순간 동안에도 팬들을 웃길 줄 안다는 것이다.

그 다음 3위는 매트 데이먼, 4위는 알 파치노, 5위 톰 크루즈 , 6위 안젤리나 졸리,

조니 뎁은 매너 짱 카메론 디아즈는 꽝

7위 엘리야 우드, 8위 브리트니 머피, 9위 잭 니콜슨, 10위 클린트 이스트우드 순이다.

그렇다면, 가장 불친한 스타는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마스크’ ‘미녀삼총사’ ‘갱스 오브 뉴욕’ 등의 카메론 디아즈이다. 잡지는 디아즈가 단순히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사인은 뭐하러 받느냐고 퉁명스럽게 굴어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윌리스와 전 부인 데미 무어도 불친절한 스타 2, 3위로 나란히 랭크됐다. 그런가 하면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4위), 앨런 앨다(5위), 할리 베리(6위) 등도 사인 요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스타들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위노나 라이더, 테러 해처, 호아킨 피닉스, 러셀 크로 순.

‘사인 컬렉터스’는 러셀 크로 경우 늘 불친한 스타 1, 2위를 다퉜지만 요즘은 결혼 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는지 올해는 순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아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동진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